

전남도, 무안공항 경쟁력 확보 ‘올인’

활주로 연장 사업비·통합관사 조성비 국비 지원 건의
국제 노선 유치 다양화로 100만명 이용 공항 만들 것

전남도가 광주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을 앞두고 공항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올인하고 있다. 오는 2021년까지 광주공항이 무안공항으로 통합하는데 따라 이용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 활주로 연장 및 통합관사 조성 등 기반시설 확충을 서두르는 한편, 다양한 국제 노선을 유치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고 있다.

◇기반시설 확충 절실…국비 확보 총력
=전남도는 최근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를 연장하고 공항 상주직원들을 위한 통합 관사 신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토교통부에 사신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토교통부에

판단이다. 특히 광주 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통합되는 오는 2021년이면 50만 명대인 무안공항 이용객이 260만명대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비용항공사(LCC)뿐만 아니라 대형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무안공항 활주로 길이를 기존 2800m에서 3200m 이상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이에따라 활주로 확장에 필요한 사업비 354억 중 15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전남도는 또 항공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열악한 공항 관계자 및 항공 승무

원들의 생활 공간도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통합 관사(총 사업비 68억)를 신축키로 하고 내년 사업비로 24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장, 무안공항의 경우 ▲여객(2017년 224만5000명→2018년 252만9000명) ▲운항(2017년 1만4824회→2018년 1만7364회) ▲화물(2017년 1만7830 t→2018년 1만8370 t) 등으로 항공 수요가 급증했다.

◇관광객 넘쳐나는 공항으로…국제선 유치 총력=광주·무안공항 통합을 앞두고 정기노선 신규 취항과 증편 운항에도 적극적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국적 항공사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국내외의 18개 노선(정기 13개·부정기 5개)을 유지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국내선인 제주 1개 노선 외에 국제선으로는 중국·일본·대만·태

국·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러시아 등을 무안공항을 통해 오갈 수 있다. 지난해 같은 시기 8개 노선(정기 6개·부정기 3개)만 취항했던 것에 전취 10개 노선이 늘어난 것이다.

오는 8월이면 무안공항에서 중국 장가계, 연길을 가는 신규 항공편(주 2회)이 취항, 모두 20개 노선으로 늘어나게 된다. 전남도는 더 나아가 중국 해남도와 광노선 등 다양한 노선의 신규 취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공사와 협의, 100만명이 이용하는 공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통합에 대비, 노선 다변화, 편의시설 확충과 함께 공항 주변지역 개발 등을 추진해 공항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 5개시 시내버스터 무료 와이파이 즐기세요

목포·여수·나주·광양 16일 구축
순천시는 2016년 자체 서비스

전남지역 5개 시에서 운행하는 모든 시내버스에서 누구나 무료로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목포·여수·나주·광양 등 4개 지역은 시내버스 559대에 와이파이 설비를 구축하고 무료로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 순천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자체적으로 173개 시내버스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구축, 운영중인 점을 감안하면 전남 5개 시 지역 어디에서나 공짜로 인터넷을 즐길 수 있게 된 셈이다.

전남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

KT와 협약을 맺고 과기부가 와이파이 구축·운영비 9억 6000만원의 절반을 책임지고 나머지를 전남도와 시·군이 부담키로 했다.

지역민들이 시내버스에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통신사와 관계없이 휴대폰에서 ‘PublicWiFi@Bus_Free_노선번호’ 식별자(SSID)를 확인해 접속하면 된다. 보안성이 높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PublicWiFi@Bus_Secure_노선번호’에 접속할 수 있다.

전남도는 올해 하반기 버스정류장·복합시설 등 공공장소 700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 제공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세계청년축제’ 19일 개막
3일간 5·18민주광장 일원

청년들이 기획하고 만드는 ‘2019 세계 청년축제’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광주 금남로 5·18민주광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세계청년축제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중 ‘청년의 바다(Ocean for Youth)’를 주제로 세계 청년들의 기원과 소망, 비상을 담은 17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수영선수권 대회의 열기를 이어간다.

19일 오후 7시30분 전통 바라춤과 케이팝(K-pop)이 하나된 화려한 개막식과 ‘청년축제송 콘테스트’를 시작으로 3일간 일정의 문을 연다.

둘째 날인 20일 오후 8시부터는 전남대학교에서 5·18민주광장까지 500여 명이 행진하는 ‘5.18km Night Light Run’ 야간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열사들의 자취를 따라 걷는 이 퍼레이드에는 대구 청년들도 함께 참여한다.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동·서·남해에서 바닷물을 모아 바다 환경오염 문제를 제로명하는 아이스 오션 챌린지(ICE Ocean Challenge)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축제장에서는 광주의 청년정책과 다양한 청년모임을 만나볼 수 있는 도킹오션(Docking Ocean), 전국의 청년활동가와 청년문화를 엿볼 수 있는 데오도란트오션(Deodorant Ocean), 세계 청년들의 문화체험이 가능한 터널 오션(Tunnel Ocean)이 상시 운영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6일 여수시 서시장 입구에서 어린이들과 ‘고맙습니다’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 교통 안전문화정착 앞장

공공기관·민간단체 참여 캠페인

전남도가 지역민들의 교통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여수 서시장을 방문, 권오봉 여수시장,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단체 회원 100여명과 함께 ‘고맙습니다’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교통안전 캠페인은 전남지방경찰청 등 14개 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2개 시·군에서 진행중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캠페인에서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참여 신고제 시행을 알리는 전단지들을 나눠주는 등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활동을 펼쳤다.

김영록 도지사는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2022년까지 교

통사고 사망자 수 절반으로 줄이기를 추진하고 있다”며 “멈추고 살피고 건너는 안전보행과 속도를 줄이고 배려·보호하는 안전운전에 모든 모두가 함께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라는 목표에 따라 올해 16개 사업에 303억원의 예산을 편성,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과 사고 다발지역 시설 개선, 자동차 속도 저감대책 등을 마련해 추진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신임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에 서계원씨

광주시는 신임 보건환경연구원에 서계원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을 위촉승진키로하고 17일자로 임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9일 조영관 전 원장의 명예퇴직에 따라 전염병 예방 등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단행한 인사로, 올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예고대로 세계수영대회와 마스터즈대회가

종료되는 8월 말 단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임 서 원장은 지난 1992년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방보건연구사로 공직에 입문,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 검사소장, 미생물과장, 수인성질환과장, 식품의약품연구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덕남동, 임야 급매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덕남동, 992㎡, 공유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3.3㎡당 15만원)

문의. 010-6834-7400

